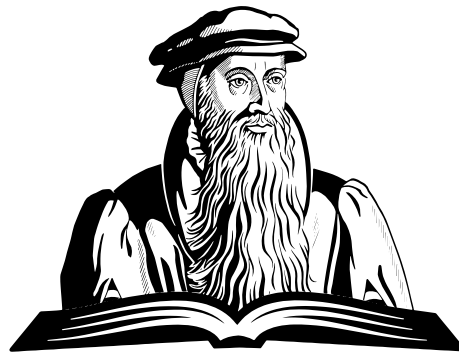

비디오 강의 학습 단계: 성경 신학

강의 12: 제사장

강의 발표자: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 M.Div



The John Knox Institute
of Higher Education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우리의 개혁된 유산을 전세계 교회에 위임하며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우리의 개혁된 유산을 전세계 교회에 위임하며

© 2019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판권. 이 출판물의 어떤 부분도 출판사의 서면 허가 없이 검토, 의견 또는 장학금을 목적으로 간단한 인용을 제외하고는 어떤 형태로든 또는 이익을 위해 어떤 수단으로도 복제될 수 없습니다.

출판사, 존 녹스 연구소, P.O. Box 19398, Kalamazoo, MI 49019-19398, 미국

달리 표시하지 않는 한 모든 성경 인용은 공인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합니다.

웹사이트방문: <https://ko.johnknoxinstitute.org>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은 스코틀랜드 자유 교회의 (continuing) 회중인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린빌에 있는 그린빌 장로교회에서 복음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www.freechurchcontinuing.org

학습단계

성경 신학

30 강의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 M.DIV.

21 장 구약 · 9 장 신약

구약 강의들

1. 소개
2. 창조
3. 타락
4. 노아
5. 아브라함
6. 족장 I
7. 족장 II
8. 출애굽
9. 시내산
10. 성막
11. 희생제물
- 12. 제사장**
13. 유업
14. 다윗
15. 시편
16. 솔로몬
17. 성전
18. 왕국
19. 예언자
20. 포로기
21. 회복

구약 강의들

22. 성육신
23. 속죄
24. 부활
25. 오순절
26. 교회
27. 연합
28. 삶의 적용
29. 사명
30. 영광

강의 12

제사장

강의 주제:

하나님은 백성들 사이에 거하시지만, 그는 오직 죄를 위해 희생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제사장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본문: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히브리서 10:11-12).

강의 스크립트 12

어린 아이들이 보는 책과 성인들이 보는 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어린이 책은 책 아래부분에 간단한 몇 글자를 적어 놓고는 대부분의 지면을 크고 형형색색의 그림으로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성인들이 보는 책은 그림은 거의 없거나, 아예 없고, 온통 글자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의식이 가진 체계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구약은 어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어진 생생한 그림책입니다. 그림이 가득한 책은 오실 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줍니다. 하지만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충분한 조명과 충분한 지식 속에서 구약의 의식을 의미하는 이 그림책은, 신약성경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성숙하고 온전한 계시에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이 강의에서, 이러한 구약의 의식에 대해서 계속 살피는 가운데 하나의 온전한 패키지를 이루는 성막과 제사와 제사장직이 가진 연결고리를 완성시킬 것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었으며,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사장은 어떤 봉사를 했으며 그것이 복음에 대해서 밝혀주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여러 의식적인 행사들은 우리에게 어떤 신학을 가르쳐주며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영감 된 이야기와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신약시대의 신자들은 자신의 대제사장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우리는 죄가 하나님의 호의적인 임재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더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이중적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제사가 필요하며, 또한 그 제사를 드릴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난 강의에서, 제사에 대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 강의에서, 우리는 두번째 곧 필히 제사장직이 예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구약의 그림자들을 연구하는 이유는 이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위격에 대한 계시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성경의 처음 다섯 권인 모세오경을 다루는데, 이 강의를 포함해서 열 두 강의를 더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다른 부분이 덜 중요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모세오경이 그 이후에 오는 모든 것을 세워 나갈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강조점들에 초점을 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스는 성경신학에 대한 과정이며, 성경의 처음 다섯권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인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앞으로, 열두번의 강의를 소화할 것이지만, 그래도 그저 몇 가지 주제만 간단하게 다루고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더 깊이 연구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강의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제사장들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레위기 전체에 걸쳐서 흐르는 지배적인 주제는 거룩입니다. 이 거룩은 천사들의 외침에 나타나듯 하나님의 성품을 정의하는 표지입니다. “거룩, 거룩, 거룩” 거룩은 두가지 측면을 모두 포함합니다. 첫째는, 분리입니다. 죄악된 것에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순결입니다. 죄가 없다는 것과 영적으로 순수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제사장들과 제단과 절기와 그릇과 기름과 제사장을 위한 옷이 모두 다 거룩하다고 묘사합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모습을 드러낼 때 거룩에 대한 메시지도 함께 눈에 보이게 나타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제사장은 자신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이 새겨진 황금판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로 들어가는 자기 백성의 거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제사장직은 이 준비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구약의 제사장직을 지정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약의 교회정치는 신약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생각해 낸 혁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규정하신대로 수납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레위기 전체에 걸쳐 분명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5:4도 역시 이를 확증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아무 이스라엘 남자나 제사장직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로 이 직분을 한정시키셨고, 또 하나님은 그 안에서 많은 가문들을 구별된 책임을 가진 다양한 부류로 나누셨습니다. 물론 제사장 계층 가운데서 뽑혔을 뿐만 아니라, 아론의 직계자손들이 담당했던 가장 존귀한 직분인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다른 사람과 그 직무를 나누지 않았는데, 그 직무 중에는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레위 지파의 나머지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레위인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전국으로 흩어졌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예배와 관련된 기능을 지정받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노래하는 사람들과 악기연주자들, 짐꾼들을 비롯해서 제사는 물론이고, 제사와 성막과 성전의 예배의 다른 측면들과 관계된 다양한 책임을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기름을 발라서 제사장으로 구별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을 성스러운 사역을 위해서 구별할 때 이들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제가 큰 그림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우리의 연구에 있는 점들을 연결할 것입니다. 구약성경에는 세 가지 주요한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각각의 직분을 담당하게 될 때 모두 다 성스러운 기름을 부어야만 했습니다. 선지자들도 그랬고, 제사자들도 마찬가지이며, 왕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 신약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구약성경의 메시아라는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두 단어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것을 합친다면, 신약에 나오는 그리스도라는 타이틀은 진정 이 세 직분의 성취와 하나님의 궁극적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축약해서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타이틀은, 최종적인 선지자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과 위대한 대제사장과 만왕의 왕을 가리키는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발견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 성소에서 섬길 때 입어야 하는 거룩한 예식복도 지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구체적인 사항이 가진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규정된 흉패에 대해서는 살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사장 직분이 감당하는 한 가지 중요한 기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도록 임명 받았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흉패에는 열 두 개의 귀한 돌과 보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각 돌에는 그 위에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돌들은 흉패에 놓여 있었

고 홍패는 대제사장의 심장을 덮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 성소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는 열 두 지파의 이름도 함께 하나님 앞에 두는 셈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는, 하시는 모든 사역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심장에 자기 백성들을 담아 영원한 보좌 앞으로 갑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 곧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제사장을 접하게 됩니다.

둘째로, 제사장들이 하는 봉사에 주의를 기울여 봅시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표하는 중보자입니다. 그는 선물과 헌물과 제물과 간구를 드리도록 지정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죄의 사함을 얻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앞선 강의에서 하나님께 대한 경배의 규정을 다룰 때 보았던 것을 여기서도 보게 됩니다. 바로 제사장들도 그들의 섬김의 활동에 제한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배에 대한 율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정하시고 명령하신 경배의 행위만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전에 이미 다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31:11에 보면, “무릇 내가 네게 명한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경배에 대한 설명이 등장하는 곳에 기저에 흐르는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레위기 8장과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레위기 10장을 예비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레위기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이 원칙을 어기는 예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0:1-3에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심지어, 대제사장인 아론의 자녀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월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이후의 역사들 속에서 오늘날까지 적용되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명령하신 대로 그 분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설교하고, 기도하고, 시편을 부르고, 성찬을 가지고, 세례를 주는 등등을 명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의식적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규정을 주셨습니까?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신학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저 몇 가지 예를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와, 매일 백성들이 가져오는 제사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 특별히 거룩한 날을 지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매년 세번, 곧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에 축제를 열고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말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은 성경의 남은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도 역시 특별한 시편을 선택하셔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부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편들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라고 부르는데, 시편 120편- 134편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절기들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처음과 마지막 절기를 설명하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약의 첫번째, 거룩한 의식적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우리는 앞서 출애굽기를 다루는 강의를 통해서 이 절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유월절과 유월절에 연결되어 있는 무교절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레위기 23:4-8에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할 때 이 절기를 지정하셨습니다. 그 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을 받은 것을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계속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이 절기의 기원은 열 가지 재앙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때 하나님은 만약 그들이 유월절 양의 피를 문의 테두리에 바르지 않으면, 모든 가정의 장자를 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은 피가 묻어 있는 가정은 넘어가셨습니다. 이 심판 속에 임한 구원은, 이스라엘의 구속과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칠 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했는데 이는 그들이 이집트에서 급히 나올 때 서둘러 빵을 만들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매일 번제를 드리라는 명령도 받았습니다.

앞으로 쪽 넘어가서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드실 때, 마태복음26:30에 보면, 그들이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 찬송이라는 말은 시편의 표제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들은 감람산으로 가는 길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렐 시편을 불렀습니다. 이 시편들은 시편 113-118편에 나오는데 바로 이 절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이 이 시편을 불렀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떠나시면서 시편 118편을 부르시고 계신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시편 118:22,23,27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땀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그 상황에서 이런 찬송을 불렀다는 것을 생각하면 강력한 능력이 생겨납니다.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예비하심을 상징하고 가리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7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분은 하나님의 유월절 양입니다. 그분의 피는 자신의 백성들을 덮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32:1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생각해 볼 두 번째, 절기는 오순절입니다. 때때로 칠칠절이나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절기도 레위기 23장에 나옵니다. 유월절 이후 오십일이 지난 후에 지키는 절기로서, 그 주의 첫 날인데 훗날 신약의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추수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제를 드렸습니다. 주목할 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삼천 명의 영혼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은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이 절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약성경을 다룰 때 오순절과 그 후에 일어난 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절기는 나팔절입니다. 이 절기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서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때 백성들은 회개하며 하나님께 성별 되어야 합니다. 백성들은 일을 쉬고 제물을 불에 태워 드립니다. 아마도 이것은 출애굽기 19장에 등장하는 나팔을 길게 부는 것을 기념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모일 때 울렸던 나팔 말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신약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곧 구세주의 출생에 대한 천사들의 선언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같은 모습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16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네 번째로, 장막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절기 중에 하나로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나야 하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백성들은 다양한 번제와 선물과 낙헌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가을 추수를 축하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진행되었는데, 나뭇가지로 장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광야에 있었던 사십 년 동안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를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절기는 대속죄일입니다. 이것은 모든 절기 중에 가장 엄숙하고 거룩한 날이었습니다. 사실, 이 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불렸고, 이스라엘의 달력과 국가적인 삶에 있어서 중심적인 날이었습니다. 대속죄일 속죄를 통해서,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영혼을 괴롭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회개의 슬픔에 대한 표현이었는데 종종 금식과 함께 행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날 자신이 평소에 입던 복잡한 예복이 아니라, 단순한 베옷을 입었습니다. 매 해, 한 번씩, 이루어지는 이 예식은 두 세트의 제물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대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죄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 후에 둘째로, 대제사장을 위한 번제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한 번제도 드렸습니다. 이 두 세트 사이에 아사셀 희생염소를 보내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의식의 절정은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일 년에 유일하게 그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날이 바로 이 날, 곧 대속죄일입니다. 그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립니다. 뿐만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와 이스라엘을 위한 염소를 지정합니다. 첫 번째, 염소는 죽어서 그 피로 하나님의 집을 정결하게 합니다. 두 번째, 염소는 아사셀 희생염소가 됩니다. 대제사장은 이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모든 이스라엘의 죄와 반역을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염소는 험악한 광야로 인도되어,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 염소가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지난 강의에서, 살펴보았던 이 제사들에 관한 영적인 의

미에서도 발견했지만, 이 아사셀 희생염소에게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모습, 곧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지고 가는 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다양한 방식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 (히 8:12, 10:17)고도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자신의 등 뒤에 (사 38:17) 그리고 깊은 바다에 (미 7:19) 던지신다고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옮기시되 동이 서에서 먼것 같이 옮기셨다 (시103:12)고도 합니다. 이 모든 표현은 아사셀 희생염소의 모습 속에 나타난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하나님께서 속죄하는 제사를 예비하셨다는 사실과 하나님과의 화해와 하나님께 용납되고, 그 분의 임재로 나아가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 절기들의 모든 구체적인 내용을 다 살펴보는 않았습디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향기나는 복음, 곧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절기들의 성취로 이 절기들을 가득 채우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세번째 요점인 완전한 제사장에게로 안내합니다.

어떻게 최악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받으실만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곧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제사장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성취되었습니다. 이 두가지 요소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는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또한 그분은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7:27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10:12절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고,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이델바르크 요리문답 12번째 주일 31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시며 자신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으며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분이요”고 합니다. 소요리문답 25문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아론의 제사장직보다 탁월하신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합니다. 7 강에서 보았듯이 그리스도는 레위지파의 반차를 쫓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스도야 말로, 지상의 제사장과 그들의 봉사와 의식적인 절기와 규례들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신약성경에서 완전히 폐지되고 그 기능을 다했습니다. 이제 기독교회에는 지상의 제사장과 예복과 제단과 분향단과 유월절과 오순절과 같은 구약의 절기는 물론이고, 그 외의 다른 의식적인 예배의 요소들이 전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그 분의 탁월한 영광에서, 우리의 시선을 떼게 하고 그분을 모욕하는 것들입니다. 골로새서 2:17은 이러한 것들이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지만 몸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신약성경의 성소 혹은 지성소는 성막과 성전과 같은 이 땅에 있는 어떤 방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정한 성소, 곧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시는 성소를 하늘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4:14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신약의 예배에는 이 땅의 상징이 없습니다. 이 상징은 너무나 시시하고 사소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천국 중심의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는 바로 천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비록 신약성경이 구약성경보다 그 형태에 있어서 더 단순하기는 하지만, 구약보다 훨씬 더 위대한 영광을 가져다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는 보좌 앞에서 모일 때, 신약의 예배는 매주 천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나 안타깝게도 그들을 따르는 어떤 개신교회에서 발견되는 제사장적 기능과 의식적인 요소를 신약의 예배 속으로 도입하려는 모든 시도에 저항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한 대제사장으로서는, 사역을 영원토록 감당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중보의 탄원을 드릴 것이며, 또한 연민과 동정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2:18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4:15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증언합니다. 또 출애굽기 19:6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레위인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은 하나의 국가로서 제사장의 직무를 통하여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물론 이것은 만인제사장 교리에 나타나듯 신약성경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9에 보면, 신약의 이방인 교회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계시록 1:6에도,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았던 구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임재 곧 지성소로 이 땅의 제사장이나 중보자의 도움없이 직접 나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16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신자들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반면에 자신의 전 생애를 그리스도께 바칩니다. 로마서 12:1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결론적으로, 이 강의는 성경의 처음 다섯권에 대한 우리의 간략한 생각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속박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을 한 나라로 세우셨으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과, 그 분께 나아가는 합당한 방식을 찾을 수 있는 수단을 의미하는 성막과 제사와 제사장직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험한 광야에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그 약속의 땅과 그 땅이 상징하는 유업에 관련된 하나님의 계시의 신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